



# 하중도(河中島)

홍성준 作

영산강 하구에는  
 강물이 흘러고 간 모래가 섬처럼 남아  
 이내 남겨진 것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  
 몇 개의 여새풀 씨앗이 겹겹이 떨어려와  
 서로 몸을 비비며 균락을 이루고  
 검은 비닐 따위가 수초마냥 휘청대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모두 떠내려갈 것 같은 적막.  
 하지만, 하중도는 적막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차박차박 물장구치는 소리와 함께  
 무리를 놓친 빨논병아리가 머리를 내밀고  
 깃털을 털며 가늘게 훑어치는 소리가  
 간간히 물결치듯 적막을 밀어냈다.  
 시베리아 강가에 알을 품은 다른 동지마냥  
 빈 모래 무덤에 슬픈 부리를 비비며  
 그는 오후의 여름을 힘겹게 넘고 있다.

비빌 언덕이 필요한건 모두 마찬가지로,  
 누군가 크게 한숨이라도 쉬면 날아갈 듯한,  
 하중도가 떠내려가지 않는 건  
 그가 부리로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비닐봉지만 칭얼댔 때에도  
 텅 빈 모래 동지가 황폐한 바람에 나동그라질 때에도  
 강가와 맞닿은 곳에 하늘로 물관을 내린  
 나무뿌리 사이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며  
 지치지 않은 새로운 동지를 쌓아올린다.  
 늦은 가을의 귤바퀴, 빨논병아리의 물장구소리에  
 도시에서 떠내려 온 이들이 어딘가 자신을 단단히  
 묶어둘 곳을 찾고 있다. 🍊



## 물(川)은 예술이다

정혜진 作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다. 하루 종일 공부에 절어 그저 피곤하고 졸릴 뿐이다. 항상 똑같은 일상에 지루해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 하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역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한참을 초점 없는 동공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어렸을 때의 추억이 내 뇌리를 번득 스쳐 지나간다. 야간 자율학습 내내, 내 머리를 붙잡아둔 그 추억인 즉, 물 따라 걷던 아름다운 추억이다.

내 친구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물 따라 걷기?" 라고 말하며 나를 촌년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볼 것이다. 일상을 컴퓨터와 함께 보냈던 그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보잘 것 없고 따분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에 이런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진다. 지금은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에 허덕이는 고등학생이라 물 따라 걷기는 커녕 제대로 운동할 시간도 없다. 이런 내 처지 때문에 어렸을 적 내가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

어렸을 적, 정확히 말해 초등학교 때이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나는 거의 매일같이 엄마와 무심천을 걷곤 했다. 무심천 주위에 도보 길과 자전거 도로가 모두 만들어졌던 해부터 우리 모녀는 그렇게 계속 무심천을 걸었다. 한 해의 시작인 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꾸준히 걸었다.

내가 사는 청주는 비록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한 도시다. 도시에서는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냄새가 가득 풍긴다. 그러나 무심천 길은 예외였다. 여유를 즐기는 사람

들의 땀 냄새, 풀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또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경적소리, 개업한 가게의 시끄러운 소음이 나를 괴롭게 한 반면, 무심천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다. 정말 징글맞게 벌레를 싫어하는 나인데도, 그때의 그 소리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코니 램버트의 노래를 듣는 것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처럼 나는 이 시절의 저녁시간을 무심천과 함께 보냈다. 걷기도 하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말이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모습을 파파라치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하곤 한다. 그런데 금강산만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연은 순리에 따라 변화한다. 무심천도 자연이기에 일 년에 네 번 그들의 옷을 갈아입는다.

봄에는 푸른색으로 염색을 한다. 이전 해의 좋지 않았던 일을 모두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풀들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격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고마운 친구다. 푸릇푸릇한 생명체들을 보며 엄마와 나누었던 얘기들이 문득 떠오른다. "엄마, 여기서 네잎클로버를 찾을 수 있을까?", "엄마, 이 꽃으로 반지 만들어줘." 이런 말을 할 때면 엄마는 항상 어린 나의 비위에 맞춰 대답해주셨다. 엄마와 말할 때면 나는 수다쟁이가 되곤 했다. 이처럼 무심천 덕에 나에게 봄은 항상 흥미로운 계절이었다.

시간이 지나 여름이 오면 많은 이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았다. 무심천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시원한 공기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에어컨 바람이 이 '신선한'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우리 모녀는 이 바람 맛에 중독되어 만날 무심천을 찾곤 했다. 우리 모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어느 여름방학 저녁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뛰야, 이 사람들..." 하고 짜증났던 적도 있다.

그래도 여름 무심천 풍경은 참 즐거워 보였다. 모두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집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쏟아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은 아니다. 그냥 그들의 표정을 보면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웃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언젠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들과 무심천에서 한바탕 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물 아래 조개도 잡고 모래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어디냐고 전화가 왔다.

"나 무심천에서 애들이랑 놀고 갈게."

나는 한참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이놈의 지지배야,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집으로 와!"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집에 들어갈 나도 아니었지만 엄마의 호령을 받은 뒤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흐르는 무심천 물에서는 거품이 뚝뚝 떨어져 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닐봉투 등 생활 쓰레기들이 적지 않았다. 엄마가 어렸을 적에는 무심천에서 멍 감고 놀았다는데 그런 엄마가 지금은 피부병 걸린다며 다리만 담그는 것도 반대하신다. 도대체 언제부터 물이 이렇게 더러운 취급을 받았을까?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물이 누구 때문에 거품을 물고 떠나려가는 것일까?

도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물에게 한 짓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자손들에게 미칠 일들을 반성해야 한다. 당신들의 자손들도 물장구 치고 놀 권리가 있다. 비록 사소해보일 지도 모르지만, 이 사소한 권리가 자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디어 속 썩이던 장마도 끝나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온다. 바람결에 갈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물 위에는 떨어진 누런

나뭇잎들이 무심천 끝자락을 따라 스스로 배가 되어 길을 떠난다. 나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경관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완벽 변신한 무심천을 볼 때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엄마와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했다. 나보다 키가 큰 갈대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찍을 때면 어느 모델 스타들도 부럽지 않았다. 또, 두루미가 물고기를 찾아 그 뾰족한 부리를 물 깊숙이 담그는 모습, 잠자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 등 물결을 따라 걷다보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림들이 1초에 수십 번씩 스쳐갔다. 그 풍경화들을 모두 담을 수 없는 내 좁은 마음의 그릇을 타할 뿐이었다.

내 눈을 즐겁게 해 주던 가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드디어 드러낸다. 찬바람과 눈으로 무장한 겨울은 유유히 흐르던 무심천의 물도 퐁퐁 얼게 했다. 퐁퐁 얼어 흐르지 않는 무심천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두루미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참을 외롭게 지내던 하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지역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심천의 한 부분을 썰매장으로 만들었다. 한번은 엄마와 나도 썰매를 타러 갔던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엄마도 나와 같은 초등학생 어린이 같았다.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시합도 했다. 물론, 날쌔고 가벼운 내가 항상 이겼지만 엄마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썰매 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어렸을 때 얼어붙은 논에서 오빠(나에게는 삼촌)가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많이 놀았다고 했다. 그제야 엄마가 것처럼 신나게 놀았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무심천이 엄마의 추억을 자극한 것이다.

이처럼 하천은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나와 엄마는 그곳의 매력에 취해 중학교 때 큰맘을 먹고 꽤 비싼 자전거를 샀었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은 충동적인 구매였다. 그런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 산 자전거가 지금은 창고에 묵혀져 있다. 자전거가 아까운 게 아니다. 그 자전거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

이다. 적어도 수능까지는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될 텐데, 나는 지금 당장 무심천으로 가고 싶어 발이 간지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현실은 책상 앞에서 꼬리뼈가 아플 정도로 앉아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결론은 지금 무심천에서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수능이 끝나면 다시 무심천에 찾아가 그 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고, 새로운 다짐을 맹세할 계획이다. 단지 자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아름답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때 묻은 손이 내 추억이 담긴 하천까지 오염시킨다면 나는 정말 분개할 지도 모른다. 🌍

하천  
문학상

3

River &amp; Culture

## 아기붕어의 꿈

최 리아 작

내 이름은 붕어, 나는 물고기다. 나는 무지개강에서 태어났다. 아빠와 엄마, 나와 형제들은 늘 아름다운 수초와 물고기 친구들이 넘쳐나는 무지개강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아직 어리다. 비늘도 작고 몸도 약하다. 하지만 커다란 비늘을 달고 다니는 아빠와 엄마의 몸은 정말 멋지다. 햇살이 비치면 온 몸이 무지개처럼 반짝거린다. 어쩌다 만나는 미꾸라지아저씨는 그럴때마다 물 속 깊이 숨어버린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숨는다고 했다.

미꾸라지 아저씨 말고도 내가 사는 마을에는 많은 물고기가 산다. 가장 나이가 많은 메기할아버지네, 뱀장어아줌마네, 수염이 기다란 잉어할아버지네, 조그만 송사리아저씨네, 이름을 세다보면 정말 끝이 없다. 가끔은 다들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무지개강 물고기들은 다들 친구가 되어 항상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가야하는 학교에 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이다. 튼튼한 어른 물고기들도 아프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와 엄마도 갑자기 열이 나더니 비늘이 빠지기 시작했다. 바로 곁에 사는 잉어할아버지네는 가족 모두가 아파 수초속에서 누워 지내기 시작했고, 힘이 센 쏘가리 아저씨는 갑자기 등이 휘었다고 했다. 우리 마을 전체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걱정만 하던 우리 마을의 모든 물고기들이 모인 날, 나는 아파서 누운 엄마아빠를 대신해 물고기 비상회의에 참석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건지 아시는 분은

없나요?”

“그건 사람들 때문이에요. 얼마전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강 옆에 작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나온 더러운 물들을 마구 버리고 있어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지를 알려야 해요.”

“우리는 다른 동식물의 말을 모두 알아듣지만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린다 말어요.”

“더군다나 누가 앞장서서 사람들앞에 나설 수가 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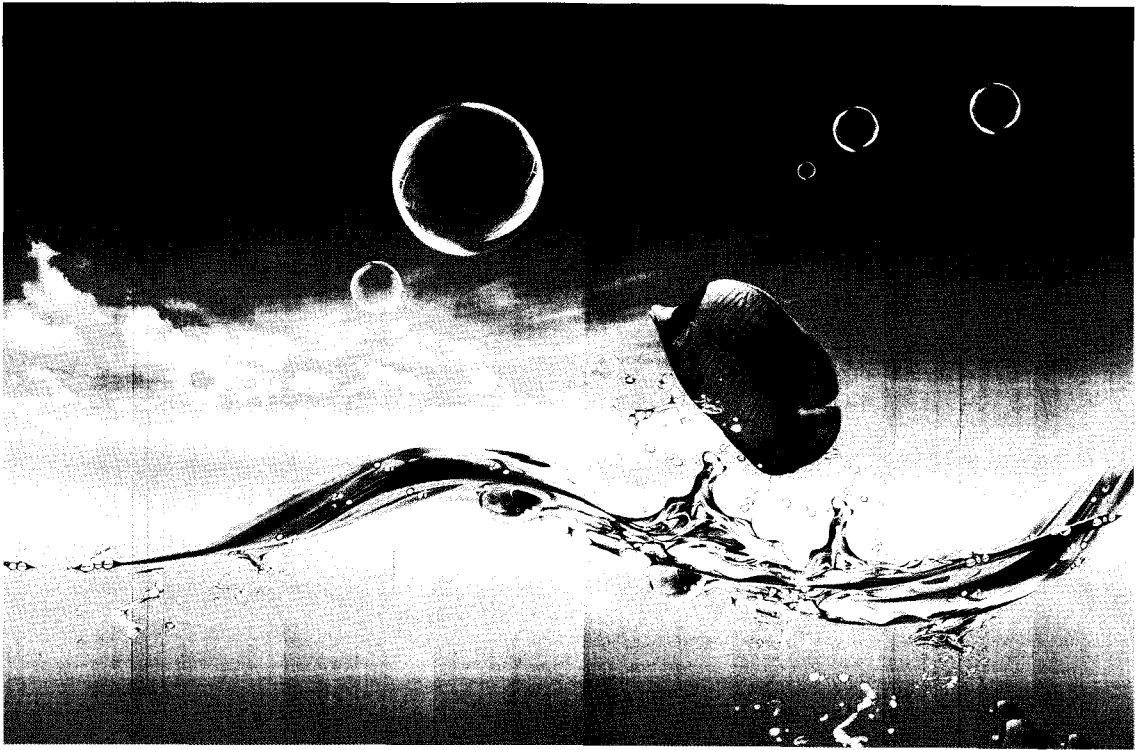
“아마도 사람들은 우릴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검을 먹고 있었다. 사실 나도 사람들이 무섭다. 전에 낚시 바늘에 걸렸다가 입을 크게 다친 친구는 지금까지도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겁쟁이 처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쏘가리 아저씨처럼 등이 굽을 지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날은 더웠다. 하지만 나는 한번도 쉬지 않고 강가까지 헤엄을 쳤다. 힘들었지만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드디어 강가,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힘차게 소리쳤다.

“제발 더러운 물을 무지개강에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 물고기들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비늘도 작고 몸도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앞까지 갔다. 겁이 났지만 참았다. 다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 내 몸을 움켜쥐었다. 너무 가까이 왔던 것이다. 나는 무서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지 말고 놓아주렴. 물고기도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어. 더군다나 너처럼 아직 작은 아이같은 걸.”

“엄마, 그럼 이 물고기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그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때까지 이 물고기도 엄마아빠가 지켜줄 걸. 아마 너한테 잡힌 걸 알면 물고기 엄마아빠의 걱정이 클거야. 그러니 놓아주렴.”

날 움켜졌던 손의 힘이 사라지면서 나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다. 잡혀있던 동안 너무너무 겁이 났지만 사람들중에도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 무지개강 물고기들의 아픔도 달래줄 것 같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 무지

개강에 생긴 일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너무너무 숨이 찼지만 나는 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쉬지않고 헤엄을 쳤다. 다행히 아직도 모두들 모여 있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알려요.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두 모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알려야 돼요.”

“꼬마붕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 모이면 한번에 다 잡히고 말걸.”

“아니예요. 나도 금방 잡혔었는데 뇌렸어요. 분명히 우릴 도와줄 거라고요.”

“말도 안돼. 어린게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드니.”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실망스러웠다. 그때 누군가 내 지느러미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줬다. 아빠와 엄마였다.오빠와 언니도 함께였다.

“나는 우리 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중에도 우리처럼 무지개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믿고 싶으

니까요. 자, 겁쟁이처럼 가만히 있지말고 당당히 나가봅시다.  
자, 우리 아가, 네가 앞장서렴.”

나는 아빠의 말에 힘을 내 물위로 올라갔다. 우리 가족이 모두 나를 따랐다. 아픈 잉어할아버지네 가족들도, 등이 굽은 쏘가리아저씨네 식구들도 모두 따랐다. 나이 많은 메기할아버지네, 키다리뱀장어아줌마네, 송사리아저씨네도 우리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강가까지 가는 동안 무지개강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모였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 줄줄이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마침내 우리는 사람들 가까이 다가갔다.

“우와, 저것봐요. 물고기떼야!”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등이 완전히 구부러진 물고기들도 많이 보이는데.”

“저기 물고기는 비늘이 다 빠져서 하얗게 되버렸네.”

“엄마, 저기 애기 물고기들은 꼭 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지개강에 어떤 일이 생긴것 같은데.”

“저기, 다들 저길 봐요. 시커먼 폐수가 마구 나오고 있어.”

“저런 나쁜 사람들. 공장이 생겼다더니 결국 이 무지개강을 다 죽이고 있군.”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우리에게 알려려고 왔나봐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군. 무지개강도 살리고 물고기들도 살려야지. 그래야 우리도 살지.”

“자.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공장에 가서 항의를 하시다. 방송국에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립시다.”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 무지개강 물고기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아주었다. 쏘가리아저씨도, 잉어할아버지도, 뱀장어아줌마도 모두 서로를 안아주었다. 너무 기뻐다. 아빠와 엄마도 나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 무지개강은 다시 예전처럼 맑고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내 몸을 막 흔들었다.

“일어나야지. 학교 안가니. 해가 뜬지가 언제인데.”

“아빠, 아빠 이제 괜찮은거야. 다 나왔어.”

“애는, 언제 아빠가 아프기라도 했니.”

“엄마, 엄마도 괜찮은거야.”

“우리 꼬마가 꿈이라도 꿨나 보구나. 네 친구 송사리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어서 학교에 가야지.”

“정말 꿈이었네.”

내 친구 송사리와 학교까지 헤엄 시험을 했다. 가다가 힘센 쏘가리아저씨를 만나 인사도 했다. 물은 맑았고 기분도 좋았다. 학교로 가는 동안 신이나 공중으로 여러번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내 모습이 신기한지 강가에 나온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